돌아올 성보의 귀환 염원하며

고성 옥천사, 6월 30일까지 '만행, 돌아온 성보' 展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영남 일대에서 유출됐던 성보문화재를 전시한다. 동화사와 옥천사가 공동 주최하고, 두 사찰의 성보박물관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만행, 돌아온 성보' 전이 동화사 전시에 이어 3월 20일(화)오후 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6월 30일(토)까지 고성 옥천사성보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영남지역 성보환수를 기념하고 아직도 만행 중인 성보의 귀환을 염원하는 뜻으로 마련됐다. LA카운티박물관에서 소장해오다 환수된 동화사 염불암 지장시왕도(동화사박물관 소장, 1841년)와 프랑스로부터 환수된 옥천사 제2초강대왕도(옥천사성보박물관 소장, 1744년), 경기도 모 박물관에서 보관하다가 발견되어 2017년 이른 봄에 돌아온 불영사 시왕도(불영사성보박물관 소장, 1880년)를 전시한다. 주요 화제가 지장시왕도이다. 또 이와 관련자료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 〈지장보살본원경〉을 선보이며 지장보살의 지물인 육환장을 비롯하여 도난 성보가 환수되기까지의 과정도 공개한다.

동화사 염불암 지장시왕도는 1988년 도난당한 뒤 30년 만에 돌아온 작품이다. 1841년 동봉법준을 비롯한 여러 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조성한 것으로 조선후기 양식을 지니고 있지만, 시왕도로서는 특이하게 병풍이 뒤 배경으로 둘러져있고 시왕과 판관 및 사자 등 인물의 자세가 자유로우면서 조화를 이룬 걸작이다. 이 작품은 염불암의 극락구품도와 같이 조성되어 양식적 특징이 비슷하다.

옥천사 제2초강대왕도는 명부전의 지장보살도와 같이 그려진 것으로, 시왕도 중 제1진광대왕도와 함께 도난당했다가 프랑스에서 발견되어 환수된 작품이다. 제2초강대왕은 죽은 후 2번 째 칠제(14일)에 만나게 되는 왕으로, 초강에서 망자의 죄를 심판하는 왕이다. 이 작품에서는 붓과 홀을 쥐고 있고, 주위에 녹사와 판관, 동자, 동녀 등이 있으며 하단에는 형벌의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옥천사의 시왕도는 지옥의 왕, 열 명을 각각 한 폭

환수된 '지장시왕도' 한 자리에
도난 성보 환수 과정도 공개
재구성 체험프로그램도 진행
제작시기 등 학술세미나 개최

에 도해하고 있어 18세기 후반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의 시왕도 유형의 선구적인 사례이다.

불영사 시왕도는 1989년 도난당했다가 시왕도 7점과 사자도 1점 총 8점이 2017년 환수되었다. 이 작품은 원래 한 폭에 두 왕을 그린 5폭 작품인데, 반환되었을 때는 한 폭에 있는 시왕을 2점으로 나누어 액자의 형태로 7점만이 돌아왔다. 1880년 조성된 작품으로 화승 서봉응순, 만파정탁 등이 참여하여 19세기의 경북 일대와 경기도의 화풍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채운으로 구분된 2단 구도로 상단에는 시왕머리위에 보개가 대칭으로 있는 것이 독특하며 하단에는 지옥도가 표현되어 있다.



염불암 지장시왕도와 불영사의 시왕도 그리고 옥천사 초강대왕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선후기 불화의 고요하면서도 화려한 색감과 독특한 표현기법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동화사업경대와 함께 삶과 죽음이라는 업연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참 '나'를 마주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될 것이다. 한편 전시 연계프로그램으로 지장시왕도와 염라대왕 업경대를 소재로 해 스탬프로 재구성해보는 체험프로그램이 어린이를 비롯한 불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도난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유출문화재가 모두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된 옥천사 전시는 사부대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시기획으로 연화산 옥천사와 옥천사성보박물관을 응원하는 불자들이 정성스럽게 마음을 모았다.

이번 전시와 함께 학술세미나가 24일(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륜연대분석을 통해 옥천사 목조나한상의 제작 시기 고찰을 내용으로 한 김요정 박사의 발표가 주목을 받았다. 옥천사 사적기를 번역하여 그 의미를 도해 스님이 발표했으며, 옥천사 대웅전의 석조불상연구는 최선일 박사, 옥천사의 지형과 인문학적 해석을 김규순 대한풍수연구원 원장이 발표했다. 옥천사 소장 1737년 작 지장보살도에 관하여 김미경 문화재감정위원이 발표했다.

◀이번 옥천사 성보박물관 전시회를 통해 공개되는 제2초강대왕도는 지난 1976년 도난당했다. 초강대왕도는 한 프랑스인이 1981년 서울 인사동 고미술상으로부터 구입한 뒤 프랑스로 가져가 35년간 보관했다가 2016년 5월 프랑스 기메박물관에 작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재청에 관련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협의끝에 2016년 10월 환수됐다.

세계화로 새 지평 여는 불교무용

제4회 국제불교무용대전
4.6~22 성균소극장, 남산국악당
싱가포르, 홍콩 등 19개 팀 공연

조계종 문화부는 불교무용예술의 저변 확대와 밝은 미래를 조명하기 위한 제4회 국제불교무용대전을 개최한다.

올해부터 국제대회로 전환된 이번 행사는 4월 6일부터 4월 22일(매주 금~일요일)까지 성균소극장(종로구 명륜3가 소재)에서 진행되며, 4월 27일과 28일에는 남산국악당에서 진행된다. 공연에는 선정된 19개 국내외 단체가 무대에 오르며, 마지막 날에는 정명숙의 축하 공연이 열린다.

올해로 4회 째를 맞는 불교무용대전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교무용예술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널리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는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의 주최로 2015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불교무용예술 진흥과 확대를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종단 주최로 이어지고 있다. 매년 공모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불교무용대전은 올해 국내 17개 단체의 참가로 작년에 비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특히 창작무용과 전통무용, 현대무용과 한국무용이 한 데 어우러져 새로운 무용의 분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제사업으로 발전한 이번 행사에는 싱가포르의 대표적 무용단인 Oddysey Dance Company와 홍콩의 빅 8 중의 하나인 HKDC(Hong Kong Dance Company)에서 출품했으며, 2019년에는 이외에도 몽골, 인디아, 일본 그리고 스페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로써 불교무용대전은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는 범아시아, 범세계적인 불교무용제로 발돋음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새로운 무용의 지평'이라는 주제로 3월 28일(수) 3시부터 기자간담회 및 쇼케이스를 개최함으로써 불교무용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전반적인 공연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월 28일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시상식 및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며, 쇼케이스와 간담회, 본 공연과 시상식을 마친 후 향후의 공연에 대한 개선점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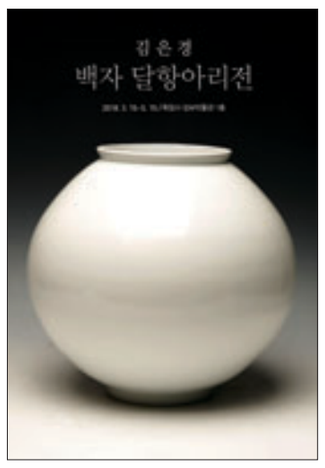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지리산 화엄사 봄맞이

성보박물관 '백자 달 항아리전'
'봄의 향기 작은 음악회'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는 봄을 맞이하는 전시와 공연을 연다. 5월 15일까지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백자 달항아리' 전을 열고, 4월 7일 오후 2시 각황전 앞마당에서는 '봄의 향기 작은 음악회'를 진행한다.

'백자 달항아리' 전은 15회 개인전과 8회의 그룹전을 통해 우리 전통 백자의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알려온 김은경 작가의 백자가 전시된다. 중앙대학교 미술대학 공예학과 외래교수인 김은경 작가는 단국대 조형대학원에서 예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리산의 봄을 맞이하는 '봄의 향기 작은 음악회'는 무대를 따로 제작하지 않고 각황전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비발디의 소나타 등이 연주되는 공연에는 각 분야의 음악가들이 기타, 클라리넷, 바이올린, 신디사이저 등을 연주하며, 화엄사 합창단 지휘자인 유환상 성악가가 봄의 즐거움을 노래한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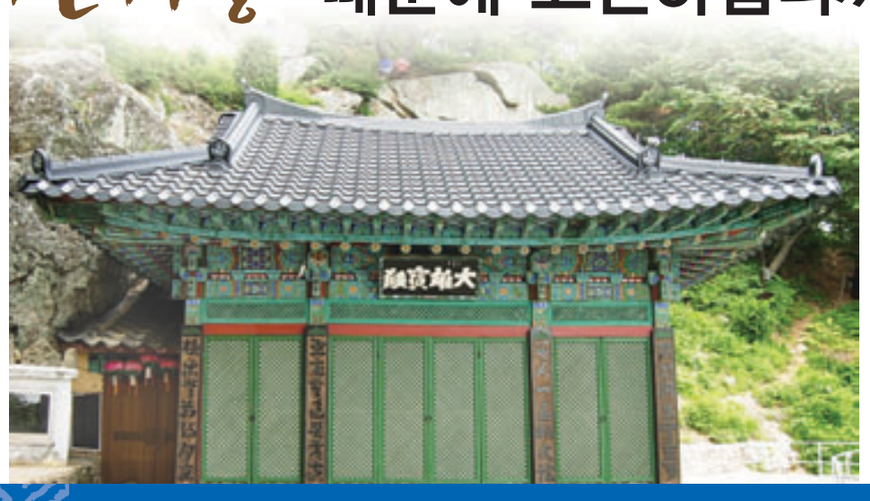
면발광 LED 인등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수미단 닫집 법당장엄일체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장엄을.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